

국내 발레관련 연구동향 분석 (2018~2022)[†]

박재홍*·탁새암** 한성대학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5년 국내 발레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해 경향을 파악하는데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활용해 최근 5년간 발행된 무용학 전체 관련 논문들을 검토 후, 총 4차의 분류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발레관련 연구로 분류된 386편(학술지논문 182편, 학위논문 204편)의 목록을 작성하여 발행연도, 연구방법, 연구분야, 발행기관, 발행지역, 분야별 연구방법, 분야별 발행기관 등의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발행기관은 학술지와 학위논문(석사, 박사), 연구방법은 질적과 양적연구로, 연구분야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분야분류표(2016년 개정)를 기본으로 연구자가 추가한 총 19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학술지는 무용전문 학술지와 그 외로, 학위논문 대학은 수도권과 그 외로 분류한 후 범주별, 항목별로 빈도분석을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 학술지와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연도별로 점증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석사학위 논문은 감소 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방법은 전체적으로 질적 연구방법이 다소 많으나 특별히 우세하지 않았다. 연구분야의 경우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5개 분야의 논문수는 총 137편(73.83%)으로, 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낸 분야는 무용교육이며 이어서 무용심리학, 무용기능학, 무용비평, 무용사회학이 차지했다. 발행기관별 논문의 경우, 무용관련 학술지가 이외 학술지에 비해 그 수는 적으나 논문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대학별 학위논문은 수도권 지역으로 상당히 편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 분류체계의 재정비와 발레관련 연구의 촉진을 위한 자료의 전문적 및 체계적 구축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 발레연구, 발레 연구경향, 발레관련 논문, 발레관련 학회지, 발레관련 대학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무용은 가장 오랜 예술의 하나로 인식되나 공연예술이라는 시공간 예술의 특성상 다른 분야에 비해 학문화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 대학 무용과를 중심으로 무용의 학문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형성해 무용학 정립 이후 괄목할 발전을 이루었고 2000년대 박사과정의 개설로 무용학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어 무용학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으나, 2000년대 초반 여전히 공연예술활동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었다(문치빈, 2007; 이은정, 1998).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무용이 공연활동에 비중을 더 두고 있는 상황은 분야의 속성상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수행의 주변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아날로그의 공연환경에 디지털의 기법이 요구되고 무대 수행의 양식이 달라지면서 무용교육에 대한 효율과 융합에 대한 요구도 날로 커지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은 수용된 사실과 이론의 축적에 의한 발전으로 인식되는 오래된 정보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기존의 패러다임을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Kuhn(2012)의 언급에 다시 주목할 시기가 왔다고 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예술학부 교수, jhpark@hansung.ac.kr

**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석사과정, bmt001@naver.com

무용의 다양한 장르 중에서 발레는 가장 오랜 무대화의 역사를 가진 장르이다. 프랑스 궁정을 벗어나 수백 년의 테크닉에 기초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예술양식으로서의 춤이 되었다(김말복, 2019). 또한 기능적으로는 발레가 가진 체계성으로 현대무용을 포함한 모든 무용의 기초훈련법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잉태된 발레는 도미니코 피아첸자(Domenico da Piacenza)를 시작으로 당시 많은 무용전문교사들이 무용기법과 안무법을 논한 글(서차영, 2001; 이덕희, 1992; Copeland & Marshall, 1983; Levinson, 1927)을 통해 이론화를 시도하였고 프랑스의 루이 14세에 이르러 일련의 엄격한 기하학적 원리들에 따라 발레 동작의 기초를 체계화해 성문화하였다(Homans, 2010). 이후 20세기에 발레는 공연예술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컨디셔닝의 요법으로서도 대중의 예술체험으로 확장하여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론과 실제의 두 영역이 상보적으로 발전해왔다.

압축적으로 성장한 여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내 발레분야와 관련된 연구도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역사가 짧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1세기의 발레는 예술적 형태와 사회적 역할에 있어 20세기와는 다른 장이 펼쳐질 것으로 예견된다. 또 한 번의 변화의 물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현황을 파악하고 관점을 생성해내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은 최근의 연구경향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비교적 최근의 발레관련 연구동향 논문으로는 1962년부터 2006년 3월까지 학술지와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발레관련 연구의 경향을 살핀 문치빈(2006, 2007)의 연구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발레관련 학위논문을 살펴본 이수연(2018)의 연구가 있다. 2018년 이후 5년간(2018~2022) 무용 연구동향 학술지 논문은 총 12편(구은자, 2018; 김지영, 2019; 박근태, 2018; 박재근, 홍애령 2019; 백영태, 이재근, 2019; 손민, 2018; 오유진, 2020; 이예슬, 최윤소, 2021; 한유진, 이유나, 황찬용, 조향휘, 김영미, 박혜진, 2018; 이수연, 2018; 현보람, 2022; 홍애령, 2019)이나 무용학의 세부영역을 주제로 연구한 것이며 발레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한 것은 이수연(2018)의 연구뿐이다. 무용 연구동향 학위논문의 경우는 총 6편(강윤주, 2019; 김수곤, 2022; 양희진, 2022; 이예슬, 2019; 이정아, 2021; 정희담, 2018)이나 역시 발레관련 연구가 아닌 그 외 무용학의 세부영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1962년부터 2006년 3월까지 발레관련 연구를 조사한 문치빈(2006; 2007)의 논문은 발레관련 연구분야의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무용학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어 전문적 발레관련 연구가 미흡하고 주제별 연구흐름의 분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레영역의 연구업적에 대한 분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문치빈, 2007). 그러나 이후 발레관련 연구 동향에 대한 논문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발레관련 학위논문만을 대상으로 한 이수연(2018)의 조사가 유일하다. 따라서 2007년 이후 학술지에 게재된 발레관련 연구에 대한 동향은 보고된 바 없으며, 2019년 이후 발레관련 학위논문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도 역시 보고된 바 없어 최근 발레관련 연구동향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연구영역에 대한 성장을 위해서는 그 분야의 연구물을 분석한 정보를 통해 학문적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분야의 연구물 분석을 통해 연구분야와 주제, 연구방법, 분석결과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장윤정, 2014; Metoyer-Duran & Hernon, 1994), 양질의 연구활동을 통해 구축되는 지식체계는 그 분야의 학문적 존재 가치를 강화(장윤정, 박중길, 2005)시키며, Witt(1984)가 언급한 바와 같이 분야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굳건한 지식체계를 구축하는 양질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최근 연구동향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자가 관심 주제와 관련된 연구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선행연구 고찰의 목적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정옥조, 2014).

이에 본 연구는 발레관련 최근 5년(2018~2022)의 국내 학술지 및 학위 논문의 추이와 연구경향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발레관련 후행연구를 제안하는데 연구목적은 두었다.

II.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발레관련 최근 5년의 국내 학술지와 학위논문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자료로 제시한다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활용하여 발레관련 논문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세 방법으로 취합하고 최종적으로 발레관련 연구를 목적과 결과로 삼은 논문만을 취합하였다(표 1).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취합하고 정리하였으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으므로 누락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학위논문과 학술지 게재 논문이 중복이라고 추정되는 건이 전체 논문의 약 6.7%(26건)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에 각각 포함하여 집계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검색어로 발레를 입력해 총 8,994건을 검색하여 단행본(총4,357건), 학술대회 발표문, 연구보고서, 공개강의 등을 제외한 학술지 1,714편과 석·박사 학위논문 2,674편을 취합한 것이고, 두 번째는 최근 5년(2018~2022) 학술지 발간논문 424편과 석·박사 학위논문 453편의 연구물을 연도별로 취합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발레를 포함한 전체 무용학관련 연구물(학술지 발행논문 236편, 석·박사 학위논문 285편)을 취합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복되거나 직접적 연관이 없는 논문들을 제외시켜 최종적으로 발레관련 연구를 목적 및 결과로 활용한 학술지 논문 182편과 학위논문 204편(석·박사)의 총 386편으로 한정하였다.

표 1. 분석대상 논문취합

구 분	방법1. 발레 통합검색		방법2. 최근 5년 연도별		방법3. 발레포함 무용논문		최종 발레관련 논문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학술지	1,714	39.06	424	48.35	236	45.30	182	47.15
석·박사	2,674	60.94	453	51.65	285	54.70	204	52.85
계	4,388	100.00	877	100.00	521	100.00	386	100.00

2. 자료 분석

최종 취합된 386편의 논문은 Mac용 Microsoft Excel 버전 16.70을 이용해 분류하고,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서술하고자 자료를 조직화하고 요약하고 기술하는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McCall, 2006)를 이용해 수집한 자료를 표로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기술통계는 결과를 그 대상 이외의 다른 대상들에 적용시키지 않고 해석의 의미를 국한(성태제, 2005)하므로 결과의 분석 시 이를 유의하였다.

연구물의 분류는 신뢰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소한 2인 이상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자료를 일정한 범주로 부호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장윤정, 박종길, 2005; Krippendorff, 1980). 한 저자가 1차적으로 모든 자료를 부호화한 후 다른 저자가 검토하였으며, 모든 분류과정을 확인 및 관리하여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취합된 자료를 연도별로 분류하여 최근 5년의 편수와 증감추이의 파악과 함께 <표 2>에서 제시된 연구분야, 발행기관, 연구방법, 발행지역, 상위 5개 연구분야의 분야별 연구방법, 분야별 발행기관 등의 분류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분야 분류기준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2023)에서 제공하는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2018년 개정)와 한국연구재단(2023)의 학술연구분야 분류표(2016년 개정)가 주요 분류체계로 국내에서 통용된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23)는 과학기술분야 중심의 표준분류 기분을 제시하는 체계로 하위분류가 세분되지 않고 통합되어 있어, 연구분야 하위분류를 14개 영역으로 세분화해 제시하는 한국연구재단의 분류표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본 연구에서의 연구분야 분류의 기본 체계로 삼았다. 그러나 분류과정에서 드러난 필요에 대응하

표 2. 분류기준

연구분야		발행기관		연구방법	발행지역	분야별 연구방법	분야별 발행기관
학술연구분야분류표	저자 추가	학술지	대학				
무용교육	리뷰	무용관련	석사학위	양적	수도권	무용교육	무용교육
무용기능학	무용생리학	이외	박사학위	질적	비수도권	무용심리학	무용심리학
무용미학	무용영화					무용기능학	무용기능학
무용보	무용예술경영					무용비평	무용비평
무용비평	무용음악					무용사회학	무용사회학
무용사	무대의상						
무용사회학							
무용심리학							
무용인류학							
무용철학							
무용치료							
안무							
움직임분석							
기타무용							

고자 본 연구에서는 무용기능학으로 포함되어 있던 무용생리학을 별도로 구분하고 무용예술경영, 무용음악, 리뷰, 무대의상, 무용영화를 추가하여 연구분야를 총 19개로 세분하여 분류하였다.

무용생리학이 무용기능학(Dance Kinesiology)으로 편입되어 분류되었으나 기능학은 신체 움직임의 기능 및 작용에 대한 학문이므로 신체의 생리적 작용을 연구하는 무용생리학(Dance Physiology)을 분리하여 분류과정에서 드러난 연구경향을 반영하였고, 무용예술경영도 무용사회학이나 기타무용으로 분류되었는데 독립된 세부영역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사례(안병주, 1999; 이수연, 2018)를 바탕으로 별도로 구분하였다. 기타무용도 분류과정에 도출된 필요에 따라 무용음악, 리뷰, 무대의상, 무용영화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조용환(2021)의 연구유형 분류를 근거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로 분류하였다. 모든 연구는 질적·양적 과정을 일정 부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상호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연구논리 측면에서 개념을 맥락에서 분리하여 조작적으로 단순화하는 양적 연구와 개념을 맥락의 복잡성 속에서 구체적으로 취급하는 질적 연구(조용환, 1995; 2021)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한편 발행기관은 학술지 60개와 학위논문 대학 39개로 분류하였다. 학술지는 다시 무용관련 학술지와 그 이외 학술지로 구분하였고, 학위논문 대학은 수도권과 그 외로 지역을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분야별 연구방법은 상위 5개 연구분야를 대상으로 각각 질적방법과 양적방법으로 분류하여 전체 추이를 파악하였고 분야별 발행기관에서는 마찬가지로 5개 연구분야에 해당하는 무용관련 학술지 및 그 이외 학술지, 학위논문에서는 석사와 박사로 분류하여 경향을 파악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연도별 발레관련 논문(2018~2022)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국내 발레관련 논문 386편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자 연도와 학술지, 학위종류에 따라 연도별로 분류하고 논문수와 비율을 비교하였다(표 3). 학술지 발표논문과 학위논문은 각각 182편(47.15%)과 204편(52.85%)으로 학위논문이 5.7%p(22편) 더 많았다.

표 3. 연도별 발레관련 논문수(2018~2022)

연도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연도별 소계	
			석사		박사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2018	30	16.48	43	26.54	4	9.52	77	19.95
2019	33	18.13	35	21.60	7	16.67	75	19.43
2020	37	20.33	28	17.28	7	16.67	72	18.65
2021	40	21.98	24	14.81	10	23.81	74	19.17
2022	42	23.08	32	19.75	14	33.33	88	22.80
평균	36.4	20.00	32.4	20.00	8.4	20.00	77.2	20.00
합계	182	100.00	162	100.00	42	100.00	386	100.00

학술지의 경우 연평균 36.4편이 발표되었는데, 2018년 30편(16.48%)에서 2022년 42편(23.08%)으로 5년 동안 점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석사학위 논문은 연평균 32.4편 발표되었는데 2018년에 43편(26.54%)에서 2021년 24편(14.81%)로 감소했다가 2022년 32편(19.75%)의 평균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박사학위 논문은 연평균 8.4편 발표되었는데 2018년 4편(9.52%)에서 2022년 14편(33.33%)으로 점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2003~2006년까지 발레관련 논문은 214편으로 연평균 53.5편(문치빈, 2007), 2008~2017년 석·박사학위 논문이 연평균 약 41편(이수연, 2018)인 것을 감안하면 연평균 논문은 다소 감소하였다고 보이나 학령인구의 감소를 고려한다면 자연감소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5년 이전의 발레관련 연구동향을 살핀 연구(강윤주, 2019; 문치빈, 2006, 2007; 이수연, 2018)는 학술지와 학위논문의 논문 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최근 5년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2. 연구방법별 발레관련 논문(2018~2022)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국내 발레관련 학술지와 학위 논문 386편을 연구방법 유형에 따라 구분해 비교하였다(표 4). 전체적으로 질적 연구방법이 208편(53.89%), 양적 연구방법이 178편(46.11%)으로 질적 연구방법이 다소 많으나 특정 연구방법이 특별히 우세하다고 할 수는 없었다. 2008~2017년 발레연구 동향 조사(이수연, 2018)에서 실험연구가 44.12%, 이외 조사, 분석, 질적연구가 모두 55.88%인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추세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양상은 학술지와 석·박사 학위논문으로 구분해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술지는 질적 연구가 98편(53.85%)이며 양적 연구가 84편(46.15%), 석사학위 논문은 질적 연구 88편(54.32%)이며 양적 연구 74편(45.68%), 박사학위 논문은 질적 연구 22편(52.38%)이며 양적 연구 20편(47.62%)으로 전체 논문의 비율 양상과 유사하였다.

표 4. 연구방법별 발레관련 논문수(2018~2022)

연구방법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방법별 소계	
			석사		박사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질적	98	53.85	88	54.32	22	52.38	208	53.89
양적	84	46.15	74	45.68	20	47.62	178	46.11
합계	182	100.00	162	100.00	42	100.00	386	100.00

3. 연구분야별 발레관련 논문(2018~2022)

다음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국내 발레관련 학술지와 학위 논문 386편을 연구분야별로 전체

논문의 수에 따라 정렬해 비교하였다(표 5). 무용교육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였고, 무용심리학, 무용기능학, 무용비평, 무용사회학이 각각 전체의 10%이상으로 상위 5개 연구분야의 논문수는 총 137편(73.83%)이며, 무용예술경영, 무용음악, 무용생리학, 안무가 전체 논문에서 각각 3~5%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무대의상, 무용사, 리뷰, 무용치료, 무용철학, 무용미학, 무용보, 무용영화는 1%대로 미미하였고 무용인류학과 움직임분석 논문은 검색되지 않았다.

무용교육 논문은 가장 많은 101편(26.17%)을 차지하였는데 다음으로 많은 무용심리학이나 무용기능학에 비해 서도 약 2배로 압도적이다. 학술지 44편에 비해 학위논문이 57편으로 10% 이상 많은데, 박사학위 논문이 전체 박사학위 논문의 35.71%(15편)로 다른 분야에 비해 월등히 많고 석사학위 논문도 25.93%(42편)으로 나타나 무용교육이 학위청구 논문에 있어 특히 박사학위에서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연구분야임을 알 수 있다. 1962~2006년은 무용미학, 무용사, 무용교육, 무용기능학 분야의 연구가 두드러졌고(문치빈, 2007), 특히 2000년대 초반에 무용교육 분야가 가장 활발히 연구되었다(장운정, 박중길, 2007). 이수연(2018)의 연구에서도 2008~2017년 석·박사학위 논문의 20.34%가 무용교육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발레관련 연구에서도 교육연구가 2022년 현재까지 가장 선호하는 연구분야임을 알 수 있다.

무용심리학 분야 발레관련 논문은 전체의 13.47%(52편)로 무용교육 다음으로 많다. 2008~2017년 발레관련 학위논문에서도 무용심리학 논문이 12.75%를 차지했다(이수연, 2018). 따라서 무용심리학에 대한 선호는 10% 이상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용교육과 마찬가지로 학술지(19편)보다 학위논문(33편)의 수가 많았으며 무용심리학 분야 내에서는 석사학위 논문이 29편으로 가장 많은 것이 무용교육 분야의 양상과는 달랐다.

무용기능학 발레관련 논문도 전체의 13.21%(51편)로 무용심리학과 유사하였다. 2008~2017년 발레관련 학위논문에서는 무용기능학 논문이 16.91%로 무용교육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이수연, 2018). 최근 5년 무용기능학 분야에서 학술지 논문이 학위논문보다 많으므로 이를 고려한다면 무용기능학 분야에 대한 선호는 10% 이상 일정

표 5. 연구분야별 발레관련 논문수(2018~2022)

연구분야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연구분야별 소계	
			석사		박사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무용교육	44	24.18	42	25.93	15	35.71	101	26.17
무용심리학	19	10.44	29	17.90	4	9.52	52	13.47
무용기능학	27	14.84	19	11.73	5	11.90	51	13.21
무용비평	19	10.40	19	11.73	3	7.14	41	10.62
무용사회학	28	15.38	10	6.17	2	4.76	40	10.36
무용예술경영	13	7.14	6	3.70	3	7.14	22	5.70
무용음악	5	2.75	15	9.26	1	2.38	21	5.44
무용생리학	13	7.14	3	1.85	2	4.76	18	4.66
안 무	2	1.10	8	4.94	3	7.14	13	3.37
무대의상	3	1.65	4	2.47	-	-	7	1.81
무용사	4	2.20	-	-	2	4.76	6	1.55
리뷰	1	0.55	3	1.85	-	-	4	1.04
무용치료	1	0.55	2	1.23	1	2.38	4	1.04
무용철학	1	0.55	-	-	1	2.38	2	0.52
무용미학	2	1.10	-	-	-	-	2	0.52
무용보	-	-	1	0.62	-	-	1	0.26
무용영화	-	-	1	0.62	-	-	1	0.26
무용인류학	-	-	-	-	-	-	-	-
움직임분석	-	-	-	-	-	-	-	-
19개 분야	182	100.00	162	100.00	42	100.00	386	100.00

수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무용교육이나 무용심리학과는 달리 학술지 논문(27편)이 학위논문(24편)에 비해 더 많았고, 학위논문 중에서는 박사학위에 비해 석사학위 논문(19편)이 더 많았다.

무용비평 분야의 최근 5년 발레관련 논문은 전체 논문의 10.62%(41편)로 무용심리학이나 무용기능학보다 약 3%p 낮았다. 2008~2017년 학위논문에서는 발레관련 무용비평 논문이 6.37%를 차지했다(이수연, 2018). 최근 5년의 무용비평 분야에서 학술지 논문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학위논문만을 본다면 이러한 추세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학술지(19편)와 학위논문(22편)의 비율은 유사하였다.

무용사회학 발레관련 논문은 전체 논문의 10.36%(40편)으로 무용심리학이나 무용기능학보다 약 3%p 낮고 무용비평과는 유사하였다. 2008~2017년 학위논문에서는 무용사회학 논문이 6.62%를 차지했고 연평균 2.7편(이수연, 2018)이며 최근 5년 학위논문은 연평균 2.4편이므로 유지는 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학술지 논문이 28편, 학위논문이 12편으로 학술지 논문이 분야 전체 논문의 77.7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른 연구분야와 다른 점이었다.

무용예술경영 발레관련 논문은 전체 386편의 5.70%(22편)로, 학술지 발표 논문(13편)이 학위논문(9편)에 비해 많았다. 2008~2017년 학위논문에서는 무용예술경영이 9.07%로 나타났다(이수연, 2018). 최근 5년간 학술지 게재논문이 학위논문보다 많은 것을 고려하면 비율이 낮아졌으나 5% 이상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용음악 발레관련 논문은 전체의 5.44%(21편)이었다. 석사학위 논문이 15편으로 학술지 5편과 박사학위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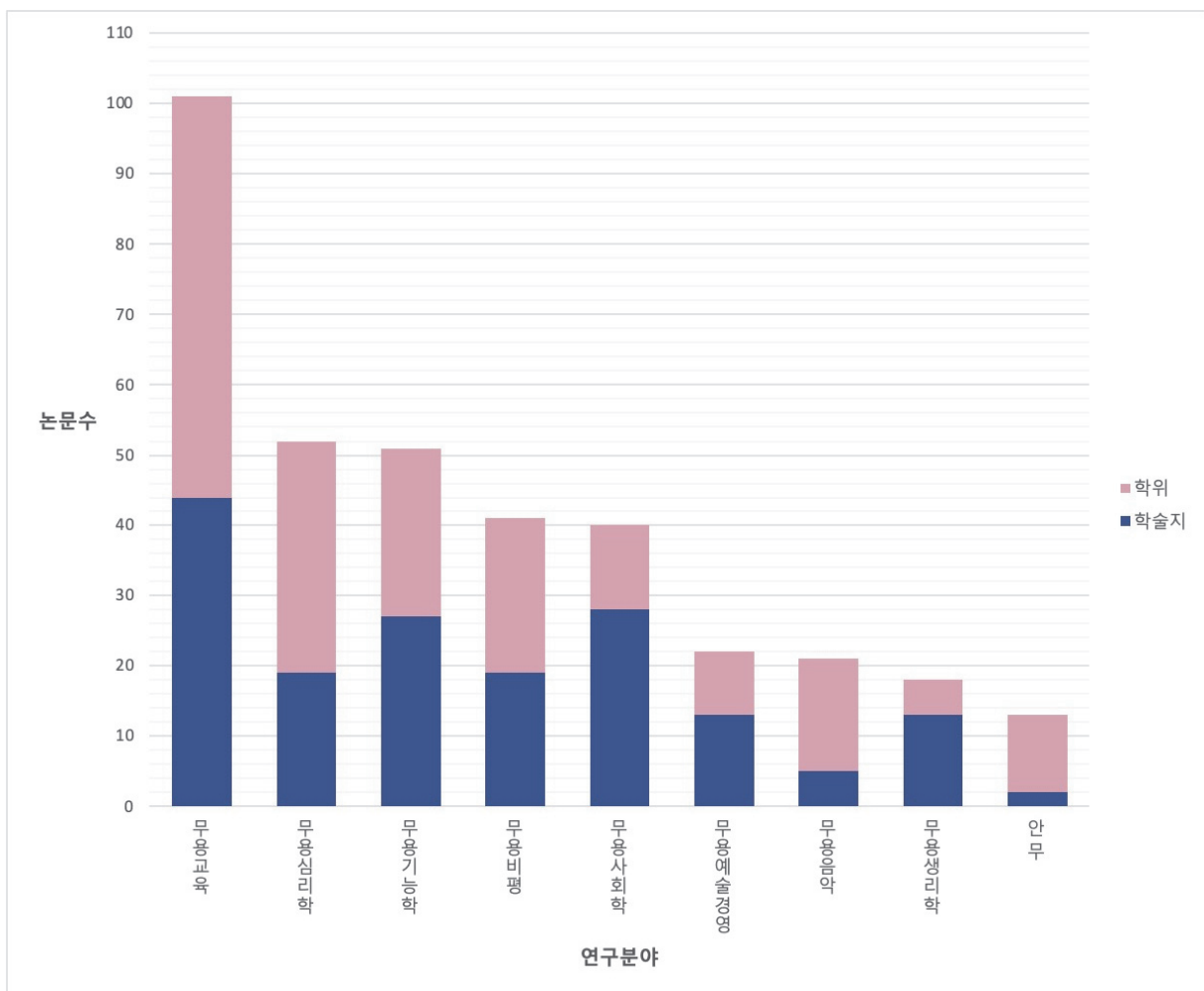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분야별 발레관련 논문수

1편에 비해 월등히 많았으며, 발레작품의 음악 분석이나 발레클래스와 연관된 논문이 대부분이었다. 무용음악은 기존 집계자료가 없어 최근 집계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무용생리학 발레관련 논문은 전체의 4.66%(18편)이었다. 무용생리학 논문 18편중 13편이 학술지 발표논문으로 학위논문은 5편에 그쳤다. 2008~2017년 학위논문을 조사한 연구(이수연, 2018)에서는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 별도로 분류 집계하였다.

안무분야 발레관련 논문은 전체 논문의 3.37%(13편)이며, 2008~2017년 학위논문에서는 안무가 6.62%, 연평균 2.7편(이수연, 2018)이었다. 최근 5년간 석사학위 논문이 8편으로 박사학위나 학술지 논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최근 연행연구(Performance Stud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구분야에 대한 선호가 유지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무대의상 분야 발레관련 논문은 전체의 1.81%(7편), 무용사 발레관련 논문은 1.55%(6편)이었다. 한편, 리뷰, 무용치료, 무용철학, 무용미학, 무용보, 무용영화 분야 발레관련 논문은 1%대(4편 이하)였고, 무용인류학과 움직임분석 발레관련 검색된 학술지와 학위 논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62~2006년은 무용학의 학문적 정립을 위한 시기였으므로 이를 위해 연구물의 대다수가 무용미학과 무용사 및 무용교육과 무용기능학이었다(문치빈, 2007). 발레관련 연구로 한정하여 비교하는 것이므로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무용미학과 무용사 분야 발레관련 연구는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연구경향을 파악한 이수연(2018)의 연구에서도 무용미학과 무용사의 양적 감소가 확인되었다.

4. 발행기관별 발레관련 논문(2018~2022)

1) 학술지별 발레관련 논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국내 발레관련 학술지와 학위 논문 386편 중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182편을 학술지별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표 6>은 무용관련 학술지와 이외 학술지로 구분하여 발레관련 게재논문의 수를 비교한 것이며, <표 7>은 60개 게재 학술지별로 게재 논문수를 기준으로 정렬하여 비교한 것이다.

무용관련 학술지는 대한무용학회, 한국무용과학회, 한국무용예술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 무용역사기록학회, 한국무용학회, 우리춤연구소, 한국예술교육학회,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영남춤학회, 한국무용연구학회, 한국무용예술경영학회 모두 12개로 발레관련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60개의 20%이나 12개 무용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발레관련 논문은 전체 학술지에 게재된 182편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어 발레관련 논문의 절반 이상이 무용관련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6>). 무용관련 학술지는 학술지당 8.3편의 발레관련 연구를 게재하였고, 이외 학술지는 학술지당 약 1.7편을 게재하였다. 따라서 발레관련 논문은 주로 무용관련 학술지에 게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수는 전체의 약 55%였다.

표 6. 무용관련 학술지와 논문수(2018~2022)

구분	학술지 수	%	논문수	%
무용관련 학술지	12	20.00	100	54.95
이외 학술지	48	80.00	82	45.05
합계	60	100.00	182	100.00

최근 5년(2018~2022) 182편의 발레관련 논문을 게재된 60개 학술지별로 살펴보면, 대한무용학회 20.88%(38편)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한국무용과학회와 한국체육과학회가 각 14편으로 7.69%를 게재하였으며, 한국무용예술학회 13편(7.14%), 한국무용교육학회와 우리춤연구소가 각각 8편(4.40%)을, 무용역사기록학회, 한국무용학회, 한국여성체육과학회가 각각 6편(3.30%)을 게재하였다.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된 발레관련

논문이 전체의 약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발레관련 게재논문수가 많은 학술지는 대부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등록된 학술지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외 51개 학술지는 각각 3편 이하의 발레관련 논문을 게재하였다.

표 7. 학술지별 발레관련 논문수(2018~2022)

발레관련 논문게재 학술지 발행 학회			논문수	%
대한무용학회			38	20.88
한국무용과학회	한국체육과학회		14	7.69
한국무용예술학회			13	7.14
한국무용교육학회	한양대학교 우리춤연구소		8	4.40
무용역사기록학회	한국무용학회	한국여성체육학회	6	3.30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3	1.65
한국예술교육학회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소		
(사)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한국스포츠학회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	1.10
한예중 한국예술연구소	한국체육사학회	한국체육학회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대한운동사협회	대한통합의학회		
동남어문학회	(사)아시아문화학술원	상명대 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숙명여대 창의융합디자인연구소	아시아문화학술원		
영남춤학회	유럽문화예술학회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조선대학교 민주평화연구원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		
한국노년학연구회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한국레저사이언스학회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한국무용연구학회	한국무용예술경영학회	1	0.55
한국발육발달학회	한국불어불문학회	한국스포츠심리학회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한국연기예술학회		
한국웰니스학회	한국융합과학회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		
한국인지과학회	한국자료분석학회	한국체육교육학회		
한국콘텐츠학회	한국패션디자인학회	한국프랑스학회		
한국현대연미드라마학회	한국HCI학회	한양대학교 음악연구소		
총 60개			182	100.00

2) 대학별 발레관련 학위논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국내 발레관련 학술지와 학위 논문 386편 중 학위논문 204편을 대학별로 비교하였다. <표 8>는 석·박사 학위논문을 발행한 대학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것이며, <표 9>은 대학별 학위논문수를 기준으로 39개 대학을 정렬하여 비교한 것이다.

표 8. 지역별 발레관련 논문수(2018~2022)

지역	대학 수	%	석사논문수	%	박사논문수	%	논문수 소계	%
수도권	21	53.85	131	80.86	33	78.57	164	80.39
비수도권	18	46.15	31	19.14	9	21.43	40	19.61
합 계	39	100.00	162	100.00	42	100.00	204	100.00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대학은 21개로 전체 39개 대학의 절반 정도인 53.85%를 차지하나 전체 학위논문의 80.39%인 164편을 발표하였다. 또한 석사학위 논문은 80.86%(131편), 박사학위 논문의 78.57%(33편)을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지역 소재 대학이 전체 발레관련 학위논문의 80% 내외를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으로 상당히 편포되었음을 알 수 있고 수도권 대학의 발레관련 대학원의 활성화 정도와도 연계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 대학은 18개(46.15%)로 석사학위 논문은 31편(19.14%), 박사학위 논문 9편(21.43%)을 발표하였다.

표 9. 대학별 발레관련 논문수(2018~2022)

석·박사 학위논문 대학(총 39개)	석사		박사		대학별 소계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한양대학교	16	9.88	8	19.05	24	11.76
이화여자대학교	16	9.88	6	14.29	22	10.78
국민대학교	14	8.64	4	9.52	18	8.82
연세대학교	16	9.88	1	2.38	17	8.33
중앙대학교	14	8.64	1	2.38	15	7.35
세종대학교	11	6.79	2	4.76	13	6.37
한국예술종합학교	11	6.79	-	-	11	5.39
성균관대학교	7	4.32	2	4.76	9	4.41
숙명여자대학교	6	3.70	2	4.76	8	3.92
충남대학교	4	2.47	4	9.52	8	3.92
부산대학교	4	2.47	2	4.76	6	2.94
강원대학교	5	3.09	-	-	5	2.45
상명대학교	2	1.23	3	7.14	5	2.45
한성대학교	4	2.47	-	-	4	1.96
경희대학교	3	1.85	1	2.38	4	1.96
공주대학교 서강대학교 조선대학교	3	1.85	-	-	3	1.47
동덕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창원대학교	2	1.23	-	-	2	0.98
단국대학교 전북대학교	1	0.62	1	2.38	2	0.98
건국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1	0.62	-	-	1	0.49
송원대학교 수원대학교 신라대학교 안동대학교	1	0.62	-	-	1	0.49
영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	-	1	2.38	1	0.49
대구대학교 삼육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호서대학교	-	-	1	2.38	1	0.49

〈표 9〉는 석·박사 학위논문 204편을 발표한 39개 대학을 논문수를 기준으로 정렬해 비교한 것이다. 전체 논문의 10% 이상을 차지한 대학은 한양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5% 이상은 국민대학교(8.82%), 연세대학교(8.33%), 중앙대학교(7.35%), 세종대학교(6.37%), 한국예술종합학교(5.39%)이다.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충남대학교, 부산대학교, 강원대학교, 상명대학교가 각각 전체 논문의 2~4%대 차지하고 있었다.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충남대학교가 각각 4편 이상을 기록하였고,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수가 적더라도 박사학위 논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전체 논문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7개 대학의 학위논문이 120편으로 전체의 58.80%를 차지하였고 모두 수도권 대학이라는 측면에서 학위논문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상위 5개 연구분야별 발레관련 논문(2018~2022)

1) 연구방법에 따른 발레관련 논문

〈표 5〉의 상위 5개 연구분야에서 어떠한 연구방법이 주로 사용되는지 알아보고자 학술지 게재논문과 학위논문을 개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표 10). 무용교육에서는 학술지와 학위논문 모두 질적방법이 일관성 있게 우세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표 4〉에서 나타난 발레관련 연구 전체의 질적방법의 비율(53.8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학습의 고유성이 강조되는 무용교육의 분야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질적연구의 우세는 무용비평, 무용사회학에서도 나타났다. 무용비평은 분야의 특성상 문헌연구이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무용사회학의 경우 무용학 연구 전체는 설문조사연구가 많아 양적연구가 우세할 것으로 보이나 발레관련 무용사회학 연구논문에서는 경험과 관련한 담론, 인식이나 현상 및 문헌연구 등이 주를 이루는 이유로 질적방법이 우세했다.

이와는 달리 무용심리학과 무용기능학은 양적방법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학술지 논문과 학위논문 모두 양적 방법이 우세하며, 이는 발레관련 무용심리학과 무용기능학의 특성상 대부분의 연구가 실험연구인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그림 2).

표 10. 분야별 연구방법

연구분야	연구방법	학술지		학위논문		연구분야별 소계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무용교육	질적 연구	28	63.64	31	54.39	59	58.42
	양적 연구	16	36.36	26	45.61	42	41.58
무용심리학	질적 연구	5	26.32	7	21.21	12	23.08
	양적 연구	14	73.68	26	78.79	40	76.92
무용기능학	질적 연구	2	7.41	1	4.17	3	5.88
	양적 연구	25	92.59	23	95.83	48	94.12
무용비평	질적 연구	19	100.00	22	100.00	41	100.00
	양적 연구	-	-	-	-	-	-
무용사회학	질적 연구	21	75.00	7	58.33	28	70.00
	양적 연구	7	25.00	5	41.67	12	30.00
총 계		137		148		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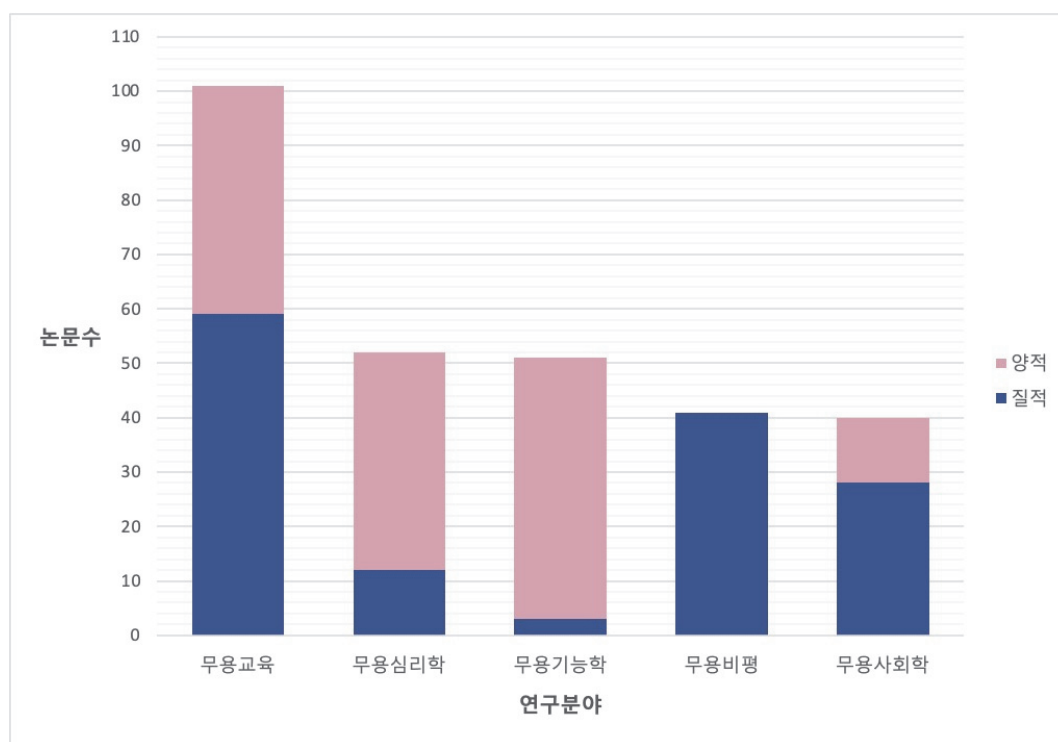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분야별 연구방법에 따른 논문수

2) 발행기관에 따른 발레관련 논문

〈표 11〉은 상위 5개 연구분야를 무용관련 학술지 및 그 외,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으로 분류해 살펴본 것이다. 공통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의 수가 가장 적고, 무용관련 학술지와 석사학위 논문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발레관련 논문의 약 1/3인 101편을 차지하는 무용교육은 석사학위(41.58%), 무용관련 학술지(28.71%),

박사와 그 외 학술지의 순으로 석사학위와 무용관련 학술지에 주로 게재함을 알 수 있다. 석사학위 논문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용비평에서도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이 외 학술지와 무용관련 학술지가 비슷했으며 박사학위 논문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한편 무용심리학은 석사학위 논문(55.77%)이 절반이 넘고 이외 학술지(21.15%)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발레 관련 무용심리학 논문이 무용관련 학술지가 아닌 그 외 학술지에 게재한다는 것은 양적연구가 주를 이루는 분야의 특성상 질적연구가 우세한 무용관련 학술지보다 대안적 학술지 게재를 희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석사논문(37.25%)과 무용관련 학술지(35.29%)가 유사하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은 무용기능학이었고, 무용사회학은 무용관련 학술지(42.5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그 외 학술지와 석사학위 논문이 각각 27.50%와 25%였다.

표 11. 분야별 발행기관

연구분야	학술지				학위논문				연구분야별 소개	
	무용관련		그 외		석사		박사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논문수	%
무용교육	29	28.71	15	14.85	42	41.58	15	14.85	101	100.00
무용심리학	8	15.38	11	21.15	29	55.77	4	7.69	52	100.00
무용기능학	18	35.29	9	17.65	19	37.25	5	9.80	51	100.00
무용비평	9	21.95	10	24.39	19	46.34	3	7.32	41	100.00
무용사회학	17	42.50	11	27.50	10	25.00	2	5.00	40	100.00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5년(2018~2022) 국내 학술지와 학위 논문의 추이와 연구경향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자료로 제시하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발레관련 연구의 과제를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RISS를 통해 발레 관련 학술지 게재논문 및 석·박사 학위논문 386편을 수집하여 연도, 연구방법, 연구분야, 발행기관 및 발행지역, 그리고 상위 5개 연구분야별 연구방법 및 발행기관 등을 다각도로 비교분석하였다.

발레관련 논문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80편 내외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등락하고 있으며, 최근 박사학위 논문이 조금 증가하였다. 발레관련 논문의 발표는 주로 무용관련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와 수도권 소재 대학에 전체의 절반 이상 80% 내외로 집중되어 있었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수도권 집중 현상은 발레관련 논문 발표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발레관련 논문의 연구분야로는 학술지 및 학위논문 모두 무용교육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세기 초반까지 무용미학, 무용사, 무용교육 및 무용기능학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5년에는 무용교육과 무용기능학을 제외하고 미학, 사학분야의 발레연구는 대폭 감소하였다. 이외 선호하는 연구분야로는 무용심리학, 무용비평, 무용사회학 등이 있었다. 최근 10여년 이상 상위 5개 연구분야로 무용교육, 무용심리학, 무용기능학, 무용비평, 무용사회학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어 왔는데 이는 무용학 기초로서 인문 분야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과 예술분야로서의 무용이 가지는 속성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견된다.

상위 5개 연구분야 발레관련 논문에서의 연구방법은 질적방법과 양적방법 모두 활용되었으나 분야별로 그 양상이 달리 나타났다. 무용교육과 무용비평, 무용사회학에서는 질적 방법이 우세하였는데 이는 학습의 고유성이나 문헌연구의 특성이 강한 분야이기 때문이며, 무용심리학과 무용기능학은 양적방법이 우세하였는데 이는 심리학과

기능학의 분야 특성에 따라 실험연구가 많기 때문이었다. 무용사회학의 경우 양적방법이 우세한 것에 비해 발레관련 무용사회학은 경험과 관련한 담론, 인식이나 현상 및 문헌연구 등이 주를 이루는 이유로 질적방법이 우세했다.

한편, 2016년 개정된 한국연구재단 무용분야 학술연구분야분류표는 현재 수행되는 연구분야의 경향을 반영 혹은 포괄하기 위해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분야의 분류 시 기존 14개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5개 영역을 추가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수행 과정 중 연구분야에서의 세부 연구 주제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 주제어와 관련한 토픽 모델링 활용 등의 연구들이 경향분석에서 종종 등장하나 이는 핵심 키워드만을 가지고 분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동향 분석에서 연구분야로 분류한 후 세부 주제로 분류 분석하여 경향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었으나 그 기준이 연구자마다 달라 현재 연구경향을 반영한 표준 분류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발레관련 연구의 종적 연구경향 추적에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행연구를 위해 다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무용분야의 현재 연구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차후 학술연구분야분류체계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 분류체계는 무용 혹은 발레분야의 연구주제나 분야 지도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무용 및 발레분야의 영역 특정적 주제와 연구분야 분류명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인 무용 교육 영역에서 연구주제나 세부분야를 구분하는데 타 분야 즉 일반적 교육계의 분류명칭이나 틀을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며 이는 무용심리학, 무용사회학, 무용기능학 등에도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윤주(2019). 토픽 모델링과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한 국내 무용학 연구 분야 탐색.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구은자(2018). 예술대학 진로지도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과 향후 과제. *한국산학기술학회*, 19(2), 508-515.
- 김말복(2019). *무용 예술의 이해*.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수곤(2022). COVID-19 팬데믹에 따른 무용연구 동향 분석 :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김지영(2019).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무용 웰니스(Dance Wellness)'연구의 주요 논제 도출. *한국예술교육학회*, 17(4), 151-161.
- McCall, B. R., *기초심리통계학*. 이관용, 김기중, 박영신 옮김(2006). 서울: (주) 시그마프레스
- 문치민(2006). *한국 무용학 논문에서 나타난 발레연구 영역과 동향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문치민(2007). 발레연구 동향 분석. *대한무용학회*, 52(52), 109-130.
- 박근태(2018). 무용수의 무용표현력에 관한 국내 학술분야 연구동향.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6(11), 621-631.
- 박재근, 홍애령(2019). 비만 및 섭식장애 관련 국내 무용학 연구동향 분석. *한국예술교육학회*, 17(4), 137-150.
- 백영태, 이대원(2019). 국내 전문무용수 연구의 성과와 과제: 1988-2019. *한국예술교육학회*, 17(4), 119-136.
- 서차영(2001). 이태리 르네상스 시기의 무용동작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 30, 141-151.
- 성태제(2005). *현대 기초통계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교육과학사.
- 손민(2018). 무용전공자의 무용동기에 관한 국내 학술분야 연구동향. *무용역사기록학회*, 49, 83-106.
- 송정은(2000). *국내무용학 문헌자료의 분석: 문헌자료실태 및 전공학생들의 이용실태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안병주(1999). 국립·국회도서관에 소장된 무용학 학위논문 현황 및 연구동향 분석. *경희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27, 81-94.
- 오유진(2020). 국내 무용 분야의 완벽주의 연구 동향과 과제. *무용역사기록학회*, 59, 75-96.
- 이덕희(1992). *발레의 초대*. 서울: 현대미술사.
- 이수연(2018). 무용학 학위논문에서 나타난 발레 연구 동향 분석.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9(3), 133-151.
- 이예슬, 최윤소(2021). 무용분야 진로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1(11), 207-217.
- 이은정(1998). *무용학 석·박사학위 논문의 연구동향 1986년부터 1995년까지*.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장윤정(2014). *국내 무용학 연구의 경향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 장윤정, 박중길(2005). 국내 무용교육학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체육학회지*, 44(5), 801-811.
- 정옥조(2014). *무용학 연구법*.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 정희담(2018). *무용학의 연구동향: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적용*.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조용환(2021). *질적 연구-방법과 사례*. 파주: 교육과학사.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3).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검색일 2022년 5월 22일) https://www.kistep.re.kr/board.es?mid=a10402000000&bid=0003&list_no=39423&act=view.
- 한국연구재단(2023). *학술연구분야분류표*. (검색일 2023년 2월 7일) https://www.nrf.re.kr/biz/doc/class/view?menu_no=323.
- 한유진, 이유나, 황찬용, 조항휘, 김영미, 박혜진(2018). 장애인 무용교육 연구 동향 분석. *한국무용학회*, 18(1), 25-32.
- 현보람(2022). 사회연결망 분석 및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한국 무용학의 연구동향 규명. *미래융합통섭학회*, 5(3), 282-299.
- 홍애령(2019).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영유아 무용교육의 연구동향 및 과제 탐색. *한양대학교 우리춤연구소*, 15(4), 9-27.
- Levinson, A.(1927). *The idea of the dance: from Aristotle to Mallarme*. in Copeland, R. & Marshall, C.(Ed.)(1983). *What is dance?*(pp.47-55). USA: Oxford University Press.
- Metoyer-Duran, C., & Herson, P.(1994). Problem statements in research proposals and published research.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6, 105-108.
- Homans, J.(2010). *Apollo's angels: a history of ballet*. USA: The Wylie Agency.
- Krippendorff, K.(1980).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London: SAGE Publication.
- Kuhn, Thomas, S.(201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USA: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BSTRACT

Research Trend of Ballet Studies in Korea (2018~2022)[†]

Jaehong Park* · Saeam Tak** Hansung University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search trend of ballet studies from 1998 through 2022 by searching and analyzing published journal papers and academic theses in Korea. Ballet study papers were searched using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by the keyword of Ballet. A total of 386 (182 in academic journals, 204 in theses) were finally collected and classified by the year of publication, issuing institutions and degrees(journals and universities), research methods(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fields(19 fields), research method by field, and issuing institution by field.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re was a gradual increase by year in academic journals and doctoral dissertations. And master's dissertations showed a tendency to increase again after decreasing. Overall,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were rather large, but they were not particularly dominant. In the case of research fields, the number of theses in the top 5 fields is 137 (73.83%) in total. The field with the highest proportion among them is dance education, followed by dance psychology, dance kinesiology, dance criticism, and dance sociology. In the case of papers by publishing institutions, the number of dance-related journals was relatively low, while the number of theses was higher than non dance-related journals. In the case of dissertations by university, it was found that they were considerably distributed in the metropolitan area. Based on the results, revising the research classification system responding to recent changes and establishing professional and systematic data platforms to promote ballet studies were suggested for further studies.

Key words : Ballet research in Korea, ballet research papers, research trend of ballet studies, ballet-related journals, ballet-related universities

논문투고일: 2023.03.07

논문심사일: 2023.04.03

심사완료일: 2023.04.21

[†] This research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Hansung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Arts, Hansung University

** MA Candidate, Major in Dance, Hans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